

## Google I/O 2025 주요 AI 발표 기능 분석 - Gemini와 새로운 AI 기능들의 실무 활용

Google이 2025년 5월 20~21일 I/O 콘퍼런스에서 대거 공개한 인공지능(AI) 관련 신기능들을,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컨설턴트·회계사 등 **비개발 직군 및 고급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능별 **사용 방법과 사례**, OpenAI ChatGPT(GPT-4 등)와의 **비교**, **Google Workspace 통합 활용 시나리오**, **비개발자를 위한 장단점, 프라이버시·보안 이슈, 요금제 변화**, 기업들의 도입 전략, 발표 이후 커뮤니티 평가, 기술적 특징(모델 구조·성능), 그리고 **AI 비전문가를 위한 활용 팁**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바로 업무에 활용 가능한 I/O 2025 AI 신기능과 사례

이번 I/O 2025에서 공개된 AI 기능 중 특히 **바로 실무에 적용해볼 만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Gemini Live**: 스마트폰 **카메라나 화면을 AI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도움을 받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가 면접 연습을 하면 카메라로 모습을 보며 AI가 피드백을 주거나, 마라톤 연습을 촬영해 자세 교정 조언을 얻는 식입니다 ①. Project Astra 연구를 통합해 주위 **현실 세상을 카메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췄으며,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미 사용 가능**하고 iOS용도 I/O 발표 시점에 공개되었습니다 ②. 이제 이 **카메라/화면 공유 기능**을 모두에게 **무료** 제공하고, 조만간 Gmail, 지도 등 **다른 Google 앱들과도 연동**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줄 예정입니다 ③. (활용 사례) : 컨설턴트가 회의 중 화이트보드 내용을 비추며 요점을 정리하게 하거나, 재무 분석가가 스프레드시트를 화면 공유해 AI 도움을 받아 패턴을 찾는 등 바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 **Deep Research 모드**: Gemini 앱 내 **깊이 있는 리서치** 기능으로, **사용자 파일 업로드**를 지원하고 곧 **Google Drive나 Gmail까지 연결**해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④. 이를 통해 개인화된 **리서치 리포트**나 전문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데, 예를 들어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관련 내부 문서들을 업로드해 **자료조사를 일임**하거나, 회계사는 새 법안 PDF를 넣어 **요약과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받는 식입니다. I/O 2025에서는 Deep Research에 **Canvas 통합**도 발표되어,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동적 인포그래픽, 퀴즈, 팟캐스트** 등을 **원클릭 생성**하는 데까지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④. 심지어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라 불리는 자연어 앱 개발 기능도 실험 중인데, 채팅으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간단한 앱을 **코딩 지식 없이 제작**할 수 있어 비개발자들의 업무 자동화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⑤. (활용 사례) : 기획자가 시장조사용으로 관련 기사 PDF 모음과 CSV 데이터를 업로드해 종합 리포트를 얻거나, 교육 담당자가 Deep Research 결과를 **퀴즈 형태 학습자료**로 바로 만들어 공유하는 등 활용이 기대됩니다.
- **AI 모드 검색 (Google Search의 AI Mode)**: 기존 검색과 생성형 AI 챗봇을 **밀접히 통합**한 새로운 검색 모드로, 미국에서 우선 출시되었습니다 ⑥. Google이 실험 중이던 SGE(Search Generative Experience)를 발전시킨 형태로, “**AI 모드**” 탭을 선택하면 검색질의에 대한 **강력한 AI 기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Gemini 2.5 모델을 검색에 탑재**하여 일반 Bard보다 **고도화된 추론과 멀티모달 처리**를 하고, 후속 질문으로 **심층 탐색**도 가능합니다 ⑦ ⑧. AI 모드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딥 서치(Deep Search)**: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 AI가 **질문을 하위 토픽으로 쪼개 수백 건의 웹 검색을 병렬 수행**하고, **출처가 명시된 전문가 수준의 종합 보고서**를 몇 분 내 생성해줍니다 ⑨. 사용자는 방대한 검색 결과를 일일이 볼 필요 없이 핵심만 모은 **완결된 답변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⑨. 예컨대 “**신흥 시장 진출 전략 리서치**”처럼 막연한 요구에도 관련 통계, 사례, 시사점을 모두 담은 **AI 리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시각 검색 (Search Live)**: **프로젝트 Astra**의 라이브 멀티모달 기술을 검색에 통합한 것으로, **렌즈(Lens)** 아이콘이나 AI 모드의 “**Live**”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대상에 대해 묻는** 인터랙션

입니다 <sup>10</sup> . 카메라로 비춘 장면이나 사물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줘” 또는 “이 기계 사용법 알려줘”처럼 물으면, 보는 내용을 이해한 AI가 대화형으로 설명과 추가 자료 링크를 제공합니다 <sup>11</sup> . (활용 사례) :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장비를 비추고 바로 사용법 매뉴얼을 받아보거나, 디자이너가 스케치 그림을 보여주며 개선 아이디어를 조언받는 식입니다 <sup>12</sup> .

- 에이전트 기능: **Project Mariner**의 웹 액션 수행 능력을 검색에 도입한 것으로, 검색 AI가 사용자 대신 웹사이트들을 탐색하고 폼 입력 등의 작업을 일부 자동화해줍니다 <sup>13</sup> . 예를 들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야외 앤틱마켓 예약해줘”라고 물으면, AI가 관련 사이트들을 동시에 검색해 조건에 맞는 행사 티켓을 찾아 실시간 재고·가격을 비교하고, 폼에 사용자 정보 입력을 대행해주는 식입니다 <sup>13</sup> .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후보 중 원하는 옵션을 골라 실제 예약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현재는 공연·경기 티켓 구매, 레스토랑 예약, 미용실 등 지역 업소 예약 등을 우선 지원하며, Ticketmaster·StubHub·Resy 같은 업체들과 협력해 매끄러운 연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sup>14</sup> . (활용 사례) : 바쁜 전문가들이 일정에 맞는 항공권·호텔 검색을 AI에게 맡겨두고, 추천 결과만 최종 확인 후 예약하는 등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 쇼핑 도우미: 검색 내 AI가 **Google Shopping Graph**를 활용하여 상품 탐색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sup>15</sup> . 막연히 “여름 정장 스타일 추천”같이 물어보면 AI가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골라 코디 제안을 해주고, 나아가 겨울 모드 시뮬레이션으로 사용자 사진에 가상 착용까지 지원합니다 <sup>16</sup> . 수십억 건의 의류 목록을 1장의 전신사진으로 가상피팅 해보는 식으로, 원하는 제품을 찾으면 에이전트가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Google Pay**로 구매까지 도와줍니다 <sup>17</sup> . (활용 사례) : 패션 소매업 컨설턴트는 이 기능으로 다양한 착장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해 트렌드 분석에 활용하거나, 일반 사용자는 AI 스타일리스트처럼 개인화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개인화 컨텍스트: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검색 AI에 연결하여 맥락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 Gmail 등 다른 Google 계정 앱의 정보를 AI Mode에 연동할 수 있으며, 검색 질문과 관련된 과거 이메일, 일정, 파일 내용 등을 참고해 더 맞춤 답을 제안합니다 <sup>18</sup> . 예를 들어 “다음주 내 친구들과 (내가 음식 취향과 일정 고려해서) Nashville에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AI가 사용자 Gmail의 항공편·호텔 예약 메일, 과거 음식점 예약 내역을 참고하여 투어 일정과 맛집 추천을 개인별로 조정해 줍니다 <sup>18</sup> . 물론 이러한 개인 컨텍스트 기능은 옵트인(Opt-in)이며, 언제든지 사용자가 연결을 해제할 수 있고, AI 응답에 개인 정보가 쓰일 때는 명시적으로 알림을 줍니다 <sup>19</sup> . (활용 사례) : 일정관리나 출장 계획 수립 시, 내 캘린더와 이메일 속 정보를 알아서 고려해주는 비서형 검색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시각화: 숫자 분석이 필요한 검색에도 AI 모드가 도움을 줍니다. 스포츠 통계나 금융 데이터처럼 복잡한 데이터셋을 AI가 분석해 차트나 그래프를 생성하여 답변과 함께 보여줍니다 <sup>20</sup> . 예컨대 “A팀과 B팀의 홈 경기 승률 비교”를 물으면 각 팀의 역대 성적 데이터를 자동 수집·분석해 대화형 차트로 시각화해줍니다 <sup>20</sup> . 현재 스포츠·금융 분야부터 적용되며, 추후 다양한 통계성 질의에 맞춤 그래프를 곁들여주는 기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실무 활용: AI 모드 검색은 정보 조사 업무에 혁신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리서치를 해야 하는 기획자는 AI 모드의 딥 서치로 신속히 자료조사를 마칠 수 있고, 컨설턴트는 에이전트 기능으로 여러 예약·구매 대행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과정에서 출처 링크도 함께 제공되므로 결과를 검증하거나 추가 탐색하기에도 용이합니다 <sup>21</sup> <sup>22</sup> . 다만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우선 도입되어 한국 등 다른 언어·국가에는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sup>23</sup> .

- Gemini 에이전트 모드 (Agent Mode): Gemini를 사람 대신 작업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활용하는 기능으로, 웹 작업 자동화와 멀티스텝 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I/O에서는 **Project Mariner** 연구를 바탕으로 한 Gemini 에이전트의 발전이 소개되었습니다 <sup>24</sup> . 에이전트는 고급 AI 두뇌에 톨 사용 능력을 결합한 개념으로, 사용자가 가르쳐준 절차를 반복 수행하는 “Teach & Repeat” 학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sup>25</sup> . 개발자용 Gemini API로 자동화 Anywhere, UiPath 같은 RPA 기업들이 이 기술을 시험 중이며, 2025년 여름쯤 더 개방될 예정입니다 <sup>26</sup> . 한편 Chrome 브라우저에도 Gemini가 통합되어, 현재 보고 있는 문서나 열려있는 탭의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복잡한 웹페이지를 요약해줄 수 있게 됩니다 <sup>27</sup> . 사용자는 크롬의 주소창이나 톨바에서 바로 Gemini에게 현재 페이지 관련 질의를 던질 수 있어, 예컨대 긴 보고서를 열어둔 채 “이 문서에서

핵심만 알려줘”라고 하면 **즉석 요약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sup>27</sup> . **Gemini 앱 내 에이전트 모드**도 준비 중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하는 시나리오**에서 조건에 맞는 부동산 매물 사이트들을 에이전트가 뒤져 **필터를 조정**하고, Anthropic 등이 제안한 **MCP(Model Context Protocol)**라는 표준을 통해 해당 웹서비스에 접근해 **방문 일정 예약까지 대행**해주는 데모가 공개됐습니다 <sup>28</sup> . 이 Gemini 앱의 에이전트 모드는 **구독자 대상 실험적 기능**으로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sup>29</sup> . (활용 사례) : 반복적인 정형 업무가 많은 회계 법인에서는 Gemini 에이전트에게 **표준 회계감사 절차**를 학습시켜두고, 유사한 고객사에 적용할 때 재사용하게 하거나, 마케팅 분야에선 AI 에이전트가 **경쟁사 웹사이트와 SNS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변화점을 요약 보고하게 만드는 등 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전트에게 **얼마나 자율권을 부여할지, 오동작시 통제방법** 등의 거버넌스가 향후 중요할 것입니다.

- **생성형 미디어 도구**: 이미지·영상 생성 AI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I/O 2025에서 **Imagen 4**라는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과 **Veo 3**라는 **비디오 생성** 모델이 발표되었는데, **Gemini 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sup>30</sup> . Imagen 4는 머리카락, 털, 옷감 질감처럼 디테일 표현이 한층 사실적이고, 텍스트 속 로고나 글자 생성 능력도 개선되어 **사실감 있는 이미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sup>31</sup> . Veo 3는 기존 영상 생성에 **배경 소음·대화 등 오디오까지 합성**해 **한층 생동감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며, 짧은 클립을 길게 **확장**하거나 **원하는 스타일로 변환**하는 데 응용됩니다 <sup>32</sup> . 다만 **Veو 3는 현재 AI Ultra 구독자만** 우선 사용해볼 수 있는 실험적 기술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sup>33</sup> . 한편 **Flow**라는 새로운 비디오 편집 툴도 공개되어, 사용자가 짧은 동영상 클립을 주면 이를 자동으로 **시네마틱하게 확장 편집**해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sup>34</sup> . 그리고 Google의 AI 노트 앱 **NotebookLM**도 진화하여, 입력한 텍스트를 여러 언어의 **팟캐스트 오디오로 자동 변환**해주는 등 멀티모달 생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sup>35</sup> . (활용 사례) : 비디오라이너도 Gemini의 이미지 생성으로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그래픽**을 빠르게 만들고, 마케터는 Flow를 통해 **동영상 광고 시안**을 손쉽게 제작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전문도구와 긴 제작 시간이 들 일이 AI로 즉각 가능해지므로, **아이디어 프로토타이핑**과 **콘텐츠 제작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요약하면, I/O 2025에서 공개된 기능들은 **일상 업무 흐름 곳곳에 AI를 스며들게** 합니다. 특히 별도 전문지식 없이 **자연어만으로 지시**하면 되므로 비개발자들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다만 일부 기능은 아직 **베타(Labs)** 단계이거나 **영어 등 일부 언어 위주 지원**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능들의 **경쟁 서비스 대비 특징과 실제 적용 시 고려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Gemini와 ChatGPT(GPT-4 등) 대비 주요 특징 비교

Google이 선보인 Gemini 생태계와 OpenAI의 ChatGPT (특히 GPT-4 모델 및 파생 서비스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 **검색·웹 연동 vs. 독립형**: Gemini는 **Google 검색** 자체에 AI 모드를 넣고, **실시간 웹검색과 결합된** 답변을 주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sup>6</sup> <sup>36</sup> . AI가 직접 웹을 검색해 **최신 정보와 출처 링크**까지 제시해주므로, **업데이트된 지식**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 ChatGPT 기본모델은 **고정된 학습데이터**에 의존해 2021년 이후 지식이 제한되며, 추가로 웹정보가 필요하면 **플러그인이나 웹브라우징 모드**를 써야 하는데 이는 별도 활성화와 제한된 성능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 최신 법규나 뉴스 기반 질의의 경우, **Gemini 2.5 Pro 모델이 실시간 정보까지 아울러 답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ChatGPT GPT-4는 **사용자가 링크나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야 정확도가 담보됩니다.
- **멀티모달 처리 능력**: 두 플랫폼 모두 텍스트 이외의 입력을 다룰 수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Gemini는 **이미지·영상·오디오를 모델에 통합훈련**하여, 카메라 비추기, 이미지 업로드, 음성 등 **다중모드 입력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sup>37</sup> <sup>30</sup> . 예컨대 Gemini Live는 **카메라 피드**를 보며 대화하고, Veo 3는 **비디오+오디오 생성**까지 합니다. ChatGPT 역시 2023년에 **이미지 인식과 음성 대화 기능**을 추가해, 사진을 올려 분석시키거나 음성으로 묻고 답하는 멀티모달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카메라 연동**이나 **동영상 생성** 등은 아직 지원하지 않으며, 멀티모달 기능 사용에도 모델별 제약(GPT-4 Vision 등 특정 모델로만 가능)이 있습니다. 요컨대 **Gemini는 구글 렌즈·번역 등 축적된 비전AI 기술을 녹여 더욱 폭넓은 멀티모달 활용**을 추구하는 반면, ChatGPT는 **텍스트 대화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모드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 **추론 및 성능:** OpenAI의 GPT-4는 등장 이후 **최고 수준의 언어이해·창의성**을 보여주며 각종 벤치마크 1위를 휩쓸었는데, Google은 Gemini 2.5 Pro로 **대등하거나 일부 우위 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Google은 Gemini 2.5 Pro 모델이 여러 평가에서 GPT-4와 동급 이상이며, AI 모델 종합 평가인 **LMarena 리더보드 모든 부문 1위를 석권**했다고 밝혔습니다 <sup>38</sup> .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Gemini 2.5 Pro의 **코딩 보조 능력**이 GPT-4 수준으로 향상되어 “가장 좋아하는 코딩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sup>39</sup> 호평이 있습니다. 특히 **병렬 추론(Deep Think)** 모드를 도입해 논리적 사고력과 수학 문제해결이 개선되는 등 GPT-4 대비 부족했던 부분을 메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자연어 창작의 독창성**이나 **지식 정확도** 측면에서는 GPT-4가 미세하게 앞선다는 평가도 공존하고, 양쪽 모두 **환각(hallucination)**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용도에 따라 장단이 있습니다. 예컨대 TechCrunch의 실제 시험에서 Gemini Live는 뉴욕의 폐업한 가게를 추천하는 등 **사실 오류를 자신 있게 말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sup>40</sup> <sup>41</sup> . ChatGPT도 환각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거나 검증요청에 대응하는 능동성**은 GPT-4가 낫다는 의견도 있어(예: “~~에 대한 근거를 알려줘”라고 하면 GPT-4 쪽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음), 사실관계가 중요한 업무에서는 여전히 **양쪽 답변 모두 검증**이 필요합니다.

• **맥락 기억량 (Context Length):** Gemini 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기술적 우위 중 하나는 **압도적인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입니다. Gemini 1.5 Pro 기준 **128k 토큰(약 10만 단어)**까지 기본 맥락을 유지하며, 프리뷰 단계에서는 **무려 100만 토큰(700k 단어 이상의 문서 분량)**을 한 번에 처리하는 실험까지 성공했습니다 <sup>42</sup> . 실제 1.5 Pro 모델은 **한 시간짜리 비디오나 11시간 분량의 오디오, 30만 자가 넘는 코드베이스**도 한꺼번에 입력받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sup>42</sup> . 반면 ChatGPT의 GPT-4는 **표준 8k 또는 확장 32k 토큰** 컨텍스트가 한계이며, 32k 모델은 별도 API나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Gemini가 **긴 문서 여러 개를 통째로 넣고 종합분석**하는 용도에 훨씬 유리함을 뜻합니다. 예컨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PDF들을 묶어 요약하려 할 때, GPT-4로는 나눠서 처리해야 하지만 Gemini라면 **한번에 장문 입력**이 가능하므로 맥락 잃지 않고 일관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Google이 **Mixture-of-Experts(MoE) 기반 아키텍처**로 모델을 설계해 **확장성**을 높이고, 메모리 최적화와 병렬화 기술을 도입한 덕분입니다 <sup>43</sup> <sup>44</sup> .

• **툴 연동과 에코시스템:** ChatGPT는 **플러그인 생태계**를 통해 서드파티 웹서비스나 도구들과 연계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예약, 주식 시세조회, 데이터 시각화 등 수백 개의 플러그인을 사용자가 설치해 챗봇 대화 중 호출할 수 있죠. 또한 2024년 말 도입된 **커스텀 GPTs** 기능으로, 비개발자도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맞춤 AI 봇(프롬프트 체인 세팅 포함)**을 생성해 쓸 수 있게 하며, 기업용으로는 **전용 챗GPT 엔터프라이즈**(사내 데이터 연결, 관리자 통제 가능)도 제공합니다. 반면 Google은 자사 풍부한 앱들을 Gemini로 **일체화**하는 전략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검색, 지도, 크롬, 지메일, 드라이브** 등 플랫폼 자체를 AI화하여 **별도 설치 없이 원스톱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 하죠. Gemini도 외부 툴 연동을 위해 **Agent2Agent, MCP** 등의 **개방형 프로토콜**에 호환한다고 밝혔지만 <sup>45</sup> , 아직 ChatGPT 플러그인만큼 방대한 써드파티 연결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정 서드파티 서비스 작업** (예: 전문 그래프 그리기, 특정 업무 앱 연동)은 현시점에선 ChatGPT 플러그인이 다양할 수 있으나, **Google Workspace 및 웹 전반 작업**은 Gemini 에이전트가 매끄럽게 처리할 강점이 있습니다.

• **개인화·톤 조절:** 두 서비스 모두 사용자의 지시에 맞춰 답변 스타일이나 맥락을 조절합니다. ChatGPT는 **Custom Instructions**를 통해 매 대화마다 기본 전제를 유지하거나, 최근에는 사용자가 **직접 프롬프트와 예시**로 “**나만의 GPT**”를 만들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Google Gemini도 **사용자 프롬프트를 저장**하고 **이전 대화 맥락을 상당 기간 기억**하여 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sup>46</sup> , I/O 2025에서 지메일 연동 등을 통한 **맞춤형 어시스턴트**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Gemini 앱은 **대화 특성을 학습**해 점차 사용자의 선호에 맞춰 “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AI”를 지향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활동과 피드백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 학습**을 진행합니다 <sup>47</sup> <sup>48</sup> . 다만 **재미 요소나 창의적 역할놀이** 등에서는 ChatGPT가 다양한 모드(GPT-4, GPT-3.5, 캐릭터 시나리오 등)를 변활용하기 좋다는 평가가 있고, Google Gemini는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책임감 있는 어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up>49</sup> <sup>50</sup> . (예: 한 보안 전문가는 “Gemini에 과자로 만든 집을 두고 누가 승자인지 Ricky Gervais 풍자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ChatGPT는 유머러스한 답을 한 반면 Gemini는 **윤리적 문제를 우려해 답변을 회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sup>49</sup> .) 이는 Google이 **AI의 유해발언과 편향을 억제**하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둔 결과로, 맥락에 따라 **조금 딱딱하고 보수적인 답변 스타일**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ChatGPT가 더 풍부한 농담이나 자유연상**을 하는 반면, Gemini는 **정보 중심으로 정제된 답변**을 추구한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Gemini와 ChatGPT는 각자 강점이 달라 경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모건스탠리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비자의 월간 사용률은 Gemini 40%, ChatGPT 41%로 비슷했고, 가격 비교나 쇼핑 같은 상업적 용도는 Gemini 쪽이 더 많이 쓰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sup>51 52</sup>. 이는 검색 쇼핑에 익숙한 사용자층이 Google AI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편으로 여전히 창작·코딩 커뮤니티의 상당수는 ChatGPT도 병행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무에서는 Gemini로 신속 정확한 정보와 작업 자동화를 얻고, 필요한 경우 ChatGPT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식으로 동시 활용도 충분히 이점이 있습니다.

## Google Workspace와 Gemini의 통합 활용 예시

Google은 자사의 업무 솔루션 Workspace (지메일, 캘린더, 문서, 스프레드시트, 슬라이드 등)에 AI “비서”를 깊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I/O 2025에서는 “Duet AI”로 불리던 기존 Workspace용 AI 도구가 곧 Gemini 기반으로 통합 개편될 것이 예고되었고<sup>53</sup>,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 시나리오가 소개되었습니다:

- **지메일(Gmail):** 이메일 답장 작성이 한층 똑똑해집니다. 과거에도 “요약해서 답장쓰기” 기능이 있었지만, 이제 Gemini가 이전 이메일 대화내용, 사용자의 문서, 메모 등을 검색해 사용자 톤과 스타일에 맞춘 맞춤 답장을 제안합니다<sup>54</sup>. 예를 들어, 회계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이메일이라면 과거 그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은 메일 어조를 파악해 격식이나 문투를 일관되게 유지해주고, 필요한 첨부파일도 드라이브에서 자동으로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는 AI가 사용자의 작업맥(context)을 폭넓게 고려해 “대필 비서”처럼 동작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메일에서 긴 이메일 스레드를 요약하거나, 받은 메일에 대한 즉각적인 통찰(“이 메일에서 중요한 요청사항은?”)을 물어보는 것도 AI가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비개발자들은 이 기능으로 메일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놓치기 쉬운 맥락도 챙길 수 있습니다.
- **문서/스프레드시트/슬라이드:** Workspace 문서 도구들은 이미 “생성형 AI로 작성(Help me write)” 기능이 도입되어 왔는데, Gemini 통합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기획자는 Google Docs에서 “올해 1분기 판매 요약 보고서 작성해줘”라고 명령하면, AI가 스프레드시트의 실제 데이터를 참고해 표와 함께 보고서를 자동작성하거나, 슬라이드에서 “이 텍스트를 요약해서 발표자료용 3포인트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한눈에 들어오는 도식화를 곁들여 슬라이드를 편집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I/O 발표에 따르면, Canvas와 통합된 Gemini가 인포그래픽이나 차트를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하므로<sup>55</sup>, Slides나 Docs 내에서도 자연어로 “이 내용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줘”처럼 요청해 문서 내용을 시각자료로 변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Google Sheets의 경우도 “이 데이터 범위를 요약해 차트와 함께 보고”를 하면 피벗 테이블 생성, 차트 추천, 통계치 설명까지 AI가 척척 해주는 식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비개발자도 엑셀의 고급 분석, 문서 편집의 고급 레이아웃 등을 AI 도움으로 수행하게 해주며, 협업 시에는 동료와 실시간으로 AI 제안을 검토·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Google Meet & Chat:** 업무 회의와 내부 소통에도 AI가 투입됩니다. Google Meet에는 실시간 음성 번역 자막 기능이 새로 생겨, 영어 미팅을 스페인어 등으로 발화자 음색과 억양까지 살려 동시통역해 줍니다<sup>56</sup>. 시연 영상에서는 발화자의 입모양과 표정에 맞춰 다른 언어로 자연스럽게 음성이 출력되어, 마치 참석자가 해당 언어로 말하는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기능은 우선 Google AI Pro 및 Ultra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베타 제공되며, 추후 Workspace 비즈니스 고객에게도 시험 도입될 예정입니다<sup>57</sup>. 이를 활용하면 다국적 팀 회의나 해외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언어 장벽이 크게 낮아져, 통역 인력 없이도 AI 자막에 의존해 원활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et의 기존 회의 요약봇도 Gemini로 더 똑똑해져, 회의 중 액션 아이템을 포착해 주거나 대화 주제별 요약 노트를 생성해 Google Docs로 공유하는 등, 회의록 작성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Google Chat(채팅 앱)에서도 AI가 대화 흐름을 실시간 요약하거나, 누군가 질문했을 때 관련 사내 문서나 정책을 AI가 찾아 답변해주는 스마트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내 Q&A 지원이나 신규 입사자 교육 등에 바로 응용 가능하여, 조직 내 지식 공유를 촉진할 것입니다.
- **Chrome 브라우저 & Android:** 앞서 언급한 크롬의 Gemini 통합으로 웹서핑 중 AI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습니다<sup>27</sup>. 특히 컨설턴트나 애널리스트가 온라인 기사나 논문을 여러 개 열어둔 상황에서, “이 페이지들의 공통 논지를 요약해줘”처럼 물으면 각 탭 내용을 파악해 통합 요약을 해주는 등 사람이라면 귀찮을 작업을 AI가 해냅니다. 또한 Android 폰에도 Gemini 기반 AI 비서가 OS 수준에 녹아들 전망입니다. 예컨대 최신 안드로이드에는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를 이해하여 관련 질문에 답하는 “스크린 읽기 AI”가 추가되고, 픽셀(Pixel) 기기에는

통화 중 맥락을 파악해 자동응답을 제안하는 “AI Call Assistant” 등이 Gemini 모델로 강화될 것입니다. I/O 2025에서는 안드로이드 XR 글라스 시연도 있었는데, 스마트안경을 쓰면 실시간 대화 번역 자막이 떠서 영어로 말하는 상대방의 말을 한국어로 보이는 식의 데모를 보였습니다<sup>58</sup>. 이런 일련의 플랫폼 통합은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AI가 백그라운드에서 도움을 주는 경험을 추구하며, Work>space</span> 사용자에겐 곧 Duet AI 대신 “Gemini for Workspace”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sup>53</sup>.

**통합 활용 시나리오:**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의 일상 업무 흐름을 상상해보겠습니다. 아침에 Gmail로 고객사 요청 메일이 도착하면, Gemini가 메일 내용을 요약하고 과거 해당 고객과 주고받은 메모까지 참고하여 “요청 사항 A, B, C이며 이전 논의된 Y와 관련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컨설턴트는 즉시 Google Docs를 열어 Gemini에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시키는데, 사내 드라이브의 관련 문서와 실시간 웹자료까지 인용해가며 완성도 높은 초안을 몇 분 내 받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크롬 확장 Gemini가 주석 형태로 용어 설명을 달아주니 이해가 빠릅니다. 이후 팀과 Google Meet으로 회의를 열면, 영어권 본사 담당자가 합류해도 Meet AI 통역이 실시간으로 자막을 보여주고, 회의 후 Gemini가 결정 사항을 요약해 모두에게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는 Slides에서 “Docs 보고서 내용으로 클라이언트 브리핑 슬라이드 만들어줘”라고 지시해 자동 생성된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편집한 뒤, Gmail에서 “이 슬라이드를 참조한 회신 작성해줘”라고 하여 고객사에 보낼 이메일 초안까지 받아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각 몇 시간씩 걸리던 문서 작성, 번역, 메일 작성이 Gemini 어시스턴트 덕분에 크게 단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 시나리오는 AI의 정확성 및 기업 정책 허용 범위 등에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Google Workspace에 깊숙히 결합된 Gemini는 “업무용 AI”로서 OpenAI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미 Microsoft도 Office 365에 유사한 Copilot AI를 적용 중이므로, 향후 사무생산성 분야 AI 경쟁은 구글과 MS의 양강 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로 쓰는 플랫폼에 내장된 AI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Google Workspace 사용자들은 Gemini를, Microsoft 365 사용자들은 GPT-4 기반 Copilot을 각각 쓰면서 생태계 따라 AI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 비개발자를 위한 실용적 AI 도구로서 Gemini의 장단점

Gemini 및 관련 AI 기능들의 장점과 한계를 비개발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Pros)

-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 자연어로 묻고 지시하면 되므로 별도 프로그래밍 없이도 고급 기능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매크로나 스크립트가 필요했던 작업도 이제 대화형으로 자동화할 수 있어, 기술 비전문가도 생산성 향상을 즉각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감사인이 “이 재무제표에서 특이사항 찾아줘”라고 물으면 AI가 복잡한 함수를 써서라도 패턴을 찾는 식입니다.
- **Google 생태계 연계:** Gmail, Docs, Search 등 익숙한 툴에 AI가 녹아있어 추가 학습 비용이 낮습니다. 콘텍스트 유지도 각 앱 간에 매끄러워 (“이 문서 내용 이메일로 요약”) 사람처럼 어시스트합니다. 또한 모바일(Android)까지 통합되어 출장 중에도 음성으로 질문해 답을 듣는 등 끊임없는 업무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파워는 경쟁 AI 대비 구글만의 강점입니다.
- **멀티모달과 실시간 정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화면, 표 등 다양한 정보 입력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능력은 복합 업무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컨대 컨설턴트가 사진이 포함된 보고서를 통째로 AI에게 분석시키고, 곧바로 최신 통계 수치를 물어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업데이트까지 하는 등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ChatGPT도 일부 가능하나, Google은 자체 검색 인덱스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결합해 이 부분에서 현실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고용량 데이터 처리:** 앞서 언급했듯 매우 긴 문서나 대량 데이터도 한꺼번에 처리하는 맥락 기억 능력은 전문직에게 유용합니다. 계약서 수십 건, 수천 행의 스프레드시트 등을 몽땅 넣고 “핵심만 추려줘” 할 수 있으니, 오랜

시간 걸리던 검토 작업을 수분 내 완료할 수 있습니다 <sup>42</sup> . 특히 법률·재무 등 문서 중심 업종에서 환영받을 만한 기능입니다.

- **비용 효율과 확장성:** Google은 최신 TPuv7 Ironwood 등의 인프라로 대규모 모델 비용을 지속 절감하고 있어,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토큰을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sup>59</sup> <sup>60</sup> . 예컨대 일부 벤치마크에서 Gemini 2.5 Pro는 GPT-4 대비 8배 저렴한 토큰당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sup>61</sup> . 이는 기업 입장에서 AI 활용량이 늘어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며, Google의 클라우드 인프라 규모 덕분에 많은 사용자 동시 접속 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큼니다 (초기 ChatGPT 열풍 때 발생한 서버 과부하 이슈 등을 Google은 비교적 잘 방어했습니다).
- **다국어 및 현지화:** Google 번역 등으로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Gemini는 여러 언어에 고르게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어 사용성도 Bard 시절부터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I/O 발표에 따르면 수십개 언어로 퀴즈나 팟캐스트 생성도 가능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sup>55</sup> . 또한 음성 합성 시 발화자 억양까지 반영하는 등 현지화 디테일을 살린 점은 ChatGPT보다 앞선 부분입니다 <sup>56</sup> . 이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전문직이 언어 장벽 없이 AI를 활용하는데 유리합니다.

## 단점 / 한계 (Cons)

- **사실 오류와 환각 문제: Generative AI의 한계인 잘못된 정보 생성이 Gemini에도 남아있습니다.** Google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출처 제시나 평판 검색 등을 접목했지만, 여전히 그럴듯하게 틀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서 Gemini Live가 뉴욕 클럽 정보를 제시하며 이미 폐업한 업소를 추천하거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로 사용자를 혼동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sup>40</sup> <sup>41</sup> . 이처럼 사실 검증과 맥락 판단을 사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비개발자라 해도 AI 출력물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ChatGPT 등 다른 AI도 마찬가지지만, Google AI라고 100% 정확할 것이라는 맹신은 금물입니다.)
- **프롬프트 의존 및 사용자 스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질문을 구체화하거나 추가 지시를 내리는 프롬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AI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실제 현업 적용해보면 질문 방식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큼니다. 이는 ChatGPT나 Gemini나 비슷하나, ChatGPT 쪽이 다양한 사용자 활용 팁이 온라인에 많고 인터페이스도 단순한 반면, Gemini는 기능이 다양해서 초보자가 어디까지 요청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모드로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교육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만 생산성 향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 **최신 기능 제한적 제공:** Google의 AI 기능들은 현재 베타(Labs)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과 언어의 제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I 모드 검색, AI Ultra의 실험 기능 등은 미국에서 영어 중심으로 먼저 출시되고 있습니다 <sup>23</sup> .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사용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업 환경에서 한꺼번에 도입하려 해도 관리 콘솔에서 베타 옵트인 설정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급 기능은 유료 구독이 필요한 점(뒤에서 설명할 Ultra 등)도 일반 사용자에게 진입장벽입니다. 반면 ChatGPT는 전세계에서 동시에 웹으로 제공되었고, 유료 플랜도 비교적 단순히 접근이 쉬웠습니다. 그러므로 Google AI는 점진적 개방 전략이어서, 얼리어답터가 아닌 대다수 일반인에게 스며드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Gemini를 완전히 활용하려면 사용자 데이터(이메일, 드라이브 파일 등)를 AI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나 회사 보안 정책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섹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기본 설정으로는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저장되고 일부는 검토 목적으로 사람이 열람할 수 있어 <sup>62</sup> <sup>63</sup>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일수록 선택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Gemini에 사건 문건을 통째로 요약 맡기는 것은 고객 기밀 유출 위험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OpenAI ChatGPT도 유사한 우려가 있지만 기업용에선 “학습에 사용 안 함” 옵션을 제공하여 많이 해소한 반면, Google도 Workspace 한정으로는 학습 미사용을 천명했으나 개인용 서비스는 여전히 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어 완전 안심하기 힘듭니다. 결국 민감한 작업에는 도입을 꺼리게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 **비정형 문제 해결 한계:** AI가 잘하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한 **일반적 패턴 처리**입니다. 그러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거나,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에서 **비논리적 또는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선 AI가 뻔한 아이디어 위주로 제시해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엉뚱하게 데이터 문맥을 잘못 파악해 **검토 대상에서 벗어난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생깁니다. ChatGPT 대비 Gemini가 이 부분에서 더 낫다는 보장은 없고, 여전히 **전문가의 판단과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가 다 해주겠지”하고 방심하면 업무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의 AI는 **유능한 조수일 뿐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Google이 “킬렌트리스(relentless)”, 즉 가차없는 속도로 모델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I/O에서 밝혔듯 <sup>64</sup>, 실제 Gemini는 짧은 주기로 버전업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장점이지만,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어제와 오늘의 답변이 달라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날 모델 파라미터가 바뀌어 **코드 스타일이 바뀌거나 성능이 떨어졌다**며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sup>65</sup>. 비개발자라도 AI 출력물에 의존하여 문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업데이트 후 **응답 어조나 포맷이 달라져** 번거워질 수 있습니다. OpenAI도 종종 모델 개선으로 응답 변화가 있었으나, Google의 통합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없기에 **일방적 변화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재학습 비용**을 유발하고, AI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비개발자에게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루틴 작업을 자동화**하고 **의사결정에 인사이트**를 주지만, **검증과 감독(oversight)**은 여전히 사람 몫입니다. 특히 아래 프라이버시/보안과 연계해 내부 정보 활용 이슈를 해결하고, AI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이슈: 데이터 사용과 보호

AI 활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입니다. Google Gemini를 업무에 활용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프롬프트/대화 내용 저장 정책:** 기본적으로 Google은 Gemini 앱에서 사용자가 나눈 **대화 내용과 사용 패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up>47</sup> <sup>48</sup>. 이러한 대화 데이터는 **사용자 Google 계정에 최대 18개월간 저장**되며, 사용자가 원하면 **3개월 또는 36개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sup>66</sup>. 또한 아예 “**Gemini 앱 활동 저장 안 함**” 설정을 통해 대화를 계정에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up>67</sup>. 다만 이 경우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대 72시간**은 데이터를 보관하며, 이 **활동 기록은 계정 기록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는 저장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sup>68</sup>. 요약하면, **기본 설정으로는 AI와의 모든 상호작용이 기록**되며, 사용자가 일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sup>69</sup> <sup>70</sup>.

- **휴먼 리뷰(인간 검토)와 학습 데이터 사용:** Google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대화 내용을 인간 평가자가 검토**하고 **주석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up>63</sup>. 실제 Gemini 지원 문서에는 “품질 향상을 위해 사람 리뷰어가 대화 내용을 읽고 표시하고 처리할 수 있으니,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경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sup>63</sup> <sup>71</sup>. **검토된 대화 데이터**는 익명화 처리되어 별도 저장되며, 최대 3년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sup>62</sup>.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인간 검토 데이터셋**은 차후 모델 훈련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sup>72</sup>. 즉, **사용자가 대화 저장을 꺼두지 않는 한, 자기 대화 일부가 Google 직원이나 계약자의 눈으로 확인되고 AI 학습재료가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OpenAI의 ChatGPT도 기본 설정에서는 유사하게 대화 내용을 활용하지만, 2023년 4월 이후 사용자가 채팅 기록 비활성화 시 학습에 미사용 정책을 도입해 **개인 사용자는 opt-out 할 수 있었습니다**. Google Gemini도 “**활동 저장 끄기**”를 하면 해당 대화를 인간 검토에 쓰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sup>73</sup>, 이 설정이 **기업용이 아닌 개인용 앱에서는 기본 꺼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업무상 민감 정보(고객 개인정보, 내부 계획 등)를 다루는 경우 반드시 활동 저장을 끄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Google도 “**사람 검토자가 볼 수도 있고, 제품 개선에 쓰일 수 있으니 기밀을 입력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sup>63</sup> <sup>71</sup>.



- **데이터 지역성과 접근 통제:** 기업 입장에선, AI에게 제공한 데이터가 어느 국가의 서버에 저장되고, 어떤 접근 통로가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Google은 자사 Privacy Policy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무단 접근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Gemini 프라이버시 설명에서는 **검토된 데이터는 계정과 분리되어 (익명화되어) 3년 보관된다고** 되어 있어 <sup>74</sup> 완전히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난 곳에 데이터 사본이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점은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가 엄격한 업계**(금융, 의료 등)에서 우려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어떤 은행이 Gemini를 도입하려 해도, 고객 정보가 들어간 질문을 했다가 그 조각이 Google의 리뷰 데이터셋에 남으면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안 정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AI에 자료를 투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의 AI**(Google Cloud Vertex AI의 프라이빗 모델 등)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Workspace(엔터프라이즈)와 개인용의 차이:** 다행히도 **Google Workspace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Google이 “고객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식 밝히고 있습니다 <sup>75</sup> <sup>53</sup>. 실제로 Duet AI (Workspace용 AI)가 문서나 이메일 내용을 읽어도, 그 내용은 오직 그 세션 응답 생성에만 쓰이고 **Google의 모델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up>53</sup> <sup>76</sup>. 이는 MS Copilot이나 OpenAI Enterprise와 동일한 **데이터 격리 보호**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 단위로 Google AI를 쓴다면 **엔터프라이즈 전용 모드**를 통해 사내 데이터가 외부에 학습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쓰는 Gemini 앱(일반 구글 계정)에서는 위 설명대로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활용이 이뤄지므로, 업무적으로 민감한 작업은 **회사에서 승인한 클라우드 계정이나 VPC 내 AI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엄격하므로, **개인정보나 식별가능 정보는 절대 AI에 직접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 **드라이브/Gmail 연동에 따른 권한 관리:** Gemini Deep Research나 AI 모드의 개인 컨텍스트 기능처럼 **AI가 사용자의 구글 계정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은, 편리하면서도 **권한 오남용 우려**를 동반합니다. Google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결 승인을 해야** 하며, 언제든지 대시보드에서 연결된 앱의 접근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sup>19</sup>. 또한 AI 답변에 개인 데이터가 쓰일 땐 그 사실을 인터페이스에 표시해 투명성을 주고, AI가 개인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여러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PC에 악성코드가 있거나 세션 하이재킹 등이 발생하면, AI에게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내용을 보여줘”라고 유도해 **민감정보를 탈취**하는 새로운 사회공학 해킹 위험도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AI 보안을 악용한 새로운 벡터이므로, 사용자는 **AI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지** 경계하고, 가능하면 **민감 폴더는 AI 접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에는 “**최소 권한 원칙**”이 더욱 중요해져, 어떤 데이터가 AI에 들어갔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 **AI 출력물의 보안:** 한편 AI가 생성한 결과물에도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작성한 코드나 문서에 **저작권상 문제가 있는 내용이나, 잘못된 정보**가 섞이면 법적·윤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Google은 **생성 콘텐츠 식별을 돕는 워터마크(SynthID)** 기술도 개발 중이라 밝혔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AI가 만들어 준 결과를 사용할 때 **저작권, 개인정보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활용은 편리성과 리스크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키면서 AI 이점을 누리려면 다음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정보는 비입력:** 고객명, 계좌번호 등 **민감한 PII는 입력 지양** – AI가 답변 생성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한 넣지 않아야 합니다 (AI도 그런 세부정보 없이 요약/조언 가능).
- **활동기록 관리:** **Gemini 앱 활동 저장 끄기** 등 옵션 활용 – 작업 후에는 대화 기록을 직접 지우는 것도 권장됩니다 <sup>66</sup>. ChatGPT도 업무 대화는 History Off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 **기업 전용 인스턴스 사용:** 가능하면 **엔터프라이즈 버전** (Google Cloud의 Vertex AI 등)을 쓰고, 불가피하게 퍼블릭 서비스를 쓸 땐 **허용범위 내 가상 데이터나 변형 데이터만** 입력해 모델을 활용합니다.
- **AI 결과 검토 및 필터링:** AI가 생성한 문서/코드에는 **기밀이나 취약점**이 없는지 검수하고 사용합니다. 필요시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을 연계해 **AI 출력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탐지**하는 것도 고려됩니다.

Google도 이러한 기업 요구를 인지해, I/O 2025 이후 **Gemini for Workspace**에서는 강력한 **보안·컴플라이언스** 설정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추후 업데이트를 주시해야 합니다.

## AI 서비스 요금제 변화: Google AI Ultra와 구독 옵션 비교

이번 I/O 2025에서는 Google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유료 AI 구독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Google AI Ultra**라는 이름의 최상위 구독제가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기존 요금제와 변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Google AI Ultra**: 일종의 “VIP 패스”로 불리는 최상위 티어로, 월 \$249.99 (약 35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입니다<sup>77</sup><sup>78</sup>. Ultra 구독자는 **Google의 최신 AI 기술에 대한 독점적 얼리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Veo 3 비디오 모델**이나 **Imagen 4 이미지 모델** 등 **실험 단계 제품을 가장 먼저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sup>77</sup>. 또한 **YouTube 프리미엄 구독**과 **30TB의 구글 드라이브 추가 저장공간**이 포함되어, 사실상 Google One 30TB 요금제(월 \$149.99 상당) + AI 특전을 합친 구성입니다<sup>77</sup>. I/O에서 언급된 Ultra 혜택에는 **Gemini 2.5 Pro의 DeepThink 모드** (고급 추론 모드) 사용, **Flow 동영상 생성 툴** 사용, **NotebookLM 오디오 생성 기능** 등이 있습니다<sup>79</sup>. 쉽게 말해, **일반에 공개하기엔 이른 실험적 기능들을 Ultra 구독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피드백을 받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Google 측 발언에 따르면 이 요금제는 “**개척자, 선구자, 최첨단 AI를 남들보다 먼저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VIP 패스**”라고 합니다<sup>80</sup>. Ultra는 2025년 5월 기준 미국에서 출시되었고, 향후 몇 달 내 다른 국가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sup>23</sup>.

- **Google AI Pro (구 Google One AI Premium)**: 원래 Google은 유료 구독제인 **Google One**(드라이브 저장공간 제공)에서 상위 티어 사용자에게 일부 **고급 AI 기능**을 제공해왔습니다. 예컨대 Google One 2TB (\$9.99/월) 이상 플랜에는 **Bard의 고급모델 우선 접근, 이미지 생성** 등의 특전이 붙었습니다. I/O 2025에서 Google은 이 AI 포함 One 요금제를 개편하여 '**Google AI 프로(Pro)**'로 리브랜딩했습니다<sup>81</sup>. 가격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장용량에 따라 월 \$19.99~149.99** 범위이며, 사실상 Google One의 2TB~30TB 플랜을 가리킵니다<sup>81</sup>. AI Pro 구독자는 **Gemini 2.5 모델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일부 고급 기능**(예: 32k 토큰 이상의 긴 문서 모드나 추가 API 호출 등)이 무료 사용자보다 우선 제공됩니다. 쉽게 말해 ChatGPT의 **월 \$20 Plus 플랜**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Google의 경우 **저장공간 혜택과 결합**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많은 Google One 가입자들이 자동으로 AI Pro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번 네이밍 변경으로 **AI에 특화된 프로 고객층**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기존 무료 및 기타 플랜**: 일반 사용자는 현재도 **무료로 Gemini(Bard)**를 쓸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Gemini 2.5 Flash 모델**(경량 고속형)을 주로 사용하고, **일부 제한적인 Pro 모델 호출 횟수**가 주어집니다. 예컨대 Reddit 사용자에게 따르면 무료로 Gemini 2.5 Pro 답변을 하루 **5회에서 10회까지**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sup>82</sup>. 이는 OpenAI가 ChatGPT 무료 버전에 GPT-3.5만 제공하고 GPT-4는 유료인 것과 비교되는데, Google은 **일부 GPT-4급 성능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용**으로는 Google Cloud의 **Vertex AI**에서 Gemini 모델 API를 사용하는 **종량제**가 존재하고, **업계 파트너 계약**에 따라 별도 과금되지만, 이는 일반 소비자 대상은 아닙니다.

- **OpenAI ChatGPT와의 가격 비교**: ChatGPT는 현재 **무료(GPT-3.5)**와 **Plus (GPT-4 포함 \$20/월)** 두 가지 개인용 플랜이 있습니다. 기업용은 **ChatGPT 엔터프라이즈**(사용자당 \$20~)와 **ChatGPT 플러스의 4배 입력 확장판 \$40** 등이 있었고, 2023년 말에는 개발자용으로 **Foundry** 서비스(전용 인프라에 GPT-4 32k 대형 배포, 월 수천 달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Bloter 보도에 따르면 OpenAI가 2024년 12월 “**최고 성능의 모델과 도구를 확장형으로 월 \$200에 이용할 수 있는 'ChatGPT 프로페셔널'**”을 내놓았다고 언급되는데<sup>83</sup>, 이는 ChatGPT 엔터프라이즈의 일종이거나 대량 사용자 버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Google AI Ultra \$250은 OpenAI의 고급플랜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가격 책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Ultra는 클라우드 저장,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번들형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Plus 대비 10배 이상 비싼** Ultra의 가치는 주로 “**최신 AI 먼저 써보기**”이므로, 일반 대중보다는 **AI 매니아, 개발자, 연구자** 층을 노린 틈새일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차라리 **Google Cloud Vertex AI 종량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Ultra는 **개인 취미층과 스타트업 프로토타이핑용** 정도로 예상됩니다.

- **요금제 변화의 의미:** Google이 그간 무료로 제공해오던 Bard(Gemini)가 부분 유료화 수순을 밟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AI 서비스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Google은 검색 광고 등 기존 사업이 ChatGPT로 위협받자,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다각화**하려 하고 있습니다<sup>83</sup>. 초반에는 빠른 점유율을 위해 무료 공개했으나, 이제 성능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고 **고급 기능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OpenAI의 전략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OpenAI도 처음 GPT-3.5를 무료 개방해 사용자 풀을 키운 뒤, **GPT-4를 유료**로 내놓았고, 기업 대상 엔터프라이즈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사가 **최신·최강 모델은 유료, 경량 모델은 무료/저가** 투트랙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플랫폼에 돈을 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ChatGPT Plus 구독자가 많지만, Google 생태계에 더 투자하는 이들은 AI Pro/Ultra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아끼려는 개인은 여전히 **양쪽 무료 모델**을 병행해 쓰면서 필요시 단건 API 호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각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자사 상황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판을 쓰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요약하면, **Google AI Ultra**의 등장은 “AI 서비스에도 프리미엄 구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빅4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사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면 Ultra 구독으로 **최첨단 기능을 미리 체험**하며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개별 전문직이라도 ROI가 크다면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는 **당장 Plus (\$20) vs Pro (\$20~) 정도에서 고민**할 텐데,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고려해 **자신에게 효용이 큰 쪽**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자체 업무문서 분석**이 필요하다면 ChatGPT 기업용을, **Google 생태계 최적화된 비서**가 필요하다면 Gemini Pro를 택하는 식입니다. 향후 경쟁으로 가격 인하나 중간요금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기업 및 회계법인의 OpenAI vs Gemini 병행/전환 전략 동향 (2025년)

**빅4 회계법인**과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2023년경부터 OpenAI의 GPT 기술을 시범 도입해왔으며, 2024~2025년에는 Google Gemini까지 병행 활용하거나 일부 전환하는 **멀티 벤더 전략**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동향과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PwC (PricewaterhouseCoopers):** 빅4 중 가장 적극적으로 generative AI를 도입한 PwC는 2023년에 OpenAI 기반 **법률 자문 AI (Harvey)**에 투자한 바 있고, **Azure OpenAI**를 활용한 솔루션들을 개발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Google Cloud와 제휴를 확대**하여 **세무, 법무 분야의 생성 AI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sup>84</sup>. PwC는 자체 세무분석 툴을 Google Cloud BigQuery 및 Vertex AI, **Gemini 모델과 접목한 법인세 자동화 솔루션**을 2024년 4월 공개했는데<sup>85</sup><sup>84</sup>, 이는 세금 규정 데이터와 ERP 시스템(SAP S/4HANA)까지 연계한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에 AI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또한 PwC는 Google과 **합동 AI 혁신 허브**를 설립하고, **법률 문서 검토, 컴플라이언스 점검, 의료분야 지원** 등 다양한 솔루션을 **Gemini 모델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sup>84</sup><sup>86</sup>. 한마디로 PwC는 **내부적으로 OpenAI와 Google 양쪽 모두 파트너십**을 맺어, **용도에 따라 최적 플랫폼**을 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컨대 고객사 요구에 맞춰 **MS Office 연계 AI 과제에는 OpenAI, Google Workspace 환경에 맞춘 과제에는 Gemini**로 제안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PwC의 글로벌 AI 책임자는 “이제 모델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제공해 활용하게 할 단계”라 언급하며, **다양한 모델 풀을 내부 검토 후 직원들에게 개방**하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sup>87</sup>.
- **KPMG:** 또 다른 빅4인 KPMG는 2024년 11월 **Google Cloud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100 million 달러(약 1천3백억원)**를 투자해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sup>88</sup><sup>89</sup>. KPMG는 본래 Microsoft와도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었지만, **Google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별 생성 AI 솔루션** (소매,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등)을 만들고 자사 성장에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sup>90</sup><sup>91</sup>. 즉 KPMG도 **멀티 클라우드 AI 전략**으로 MS + Google 모두 활용하며, Google측 기술(특히 Gemini)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배경에는 **고객사 수요 다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Azure만 쓰는 게 아니기에, **Google Cloud 기반의 AI 요구도**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KPMG는 **AI 센터 오브 엑셀런스(CoE)**를 만들어 직원 교육 및 솔루션 개발에 Google 모델을 적극 포함하고 있습니다.
- **Deloitte:** 딜로이트 역시 Google과 협력 중입니다. Deloitte는 2023년 말부터 **Google Cloud Next 2024** 등의 행사에서 **Gemini 및 모델 빌더 도구**의 활용을 시연하고, **정부 부문에 특화된 GenAI 플랫폼 (EDGE)**를

Google과 공동출시하기도 했습니다<sup>92</sup>. 또한 Deloitte 글로벌은 **자사 개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Gemini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sup>93</sup>. Deloitte가 발표한 기업 AI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8%가 AI 예산 증액 의향**을 보였는데<sup>94</sup>, Deloitte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Google Cloud 및 OpenAI 모두와 제휴**하여 고객사에게 **맞춤형 AI 솔루션**(예: 컨택센터 AI, 공급망 최적화 AI 등)을 제공하는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공공부문**에서는 Google Public Sector와 손잡고 **디지털 정부 경험 향상**을 위한 GenAI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여기에도 Gemini 등의 모델이 활용됩니다<sup>92</sup>.

- **EY (Ernst & Young):** EY는 자체 AI 플랫폼인 **EY.ai**를 구축하고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2023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다수의 대형 언어모델(LLM) 혼합 전략**을 취하고 있어, **OpenAI GPT 계열과 Google 모델, 기타 전문 모델**을 조합해 사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EY는 특히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자체 사설 모델 학습**에도 나서고 있지만, 동시에 외부 최고 모델들을 통합해 쓰는 **혼합현실 전략**을 표방합니다. 이는 **단일 벤더 종속을 피하고, 사용사례별 최적의 AI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EY의 컨설턴트들도 프로젝트에 따라 **OpenAI API를 쓰기도, Vertex AI의 Gemini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EY는 2024년 한국 법인에서도 네이버 HyperCLOVA 등 **국내 모델까지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시험 중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 **일반 대기업들:** 금융권, 제조업 등 대기업들은 초기에 MS/OpenAI 쪽에 무게를 뒀다가, 2024년 후반부터 Google을 적극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스탠리 조사 결과, 2025년 초 미국 기업들의 **생성AI 도구 사용률**은 **ChatGPT ~41%, Google Gemini ~40%**로 막상막하였고<sup>51</sup>, **상업적 활용**에서는 **Google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sup>52</sup>. 예컨대 소매 업계에서는 **상품 추천, 고객지원 챗봇** 분야에서 Google의 쇼핑 그라운드 연계 AI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 우려로 ChatGPT 접속을 차단**했던 대기업들이, Google Bard(Gemini)는 허용하는 사례도 보입니다. 이는 Google이 기업 대상 영업에서 **“우리 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Google은 “Workspace 데이터는 학습에 안 쓴다” 등의 어필을 강하게 합니다). 다만 대부분 대기업은 아직 **OpenAI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고, **파일럿 프로젝트 단계에서 여러 모델을 비교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코딩 보조**에는 **GPT-4를 쓰면**서, **설계문서 요약**에는 **Gemini를 쓰는** 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들이 Microsoft 365 Copilot과 Google Duet AI를 동시에 평가하거나, 부서별로 다른 도구를 시범 도입하는 중입니다.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신기술 분야**이므로 **복수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이죠.

- **전환 혹은 병행의 기준:** 기업들이 OpenAI에서 Google로 완전히 갈아탈지, 병행할지는 **몇 가지 요인**에 좌우될 것입니다. **첫째, 모델 성능/특화도** - 만약 Gemini가 특정 업무에서 GPT-4보다 확실히 낫다면 (예: 금융 데이터 해석) 그 분야는 Google로 전환할 것입니다. **둘째, 비용** - Google이 TPU 기반으로 비용 우위를 계속 가져가고 대규모 할인(패키지: 클라우드와 묶어) 제안을 한다면 비용민감한 고객은 이동할 것입니다<sup>60</sup>. **셋째, 통합 편의** - 회사 인프라가 Google Cloud에 이미 많다면 Gemini 쓰는 게 편할 것이고, Azure 친화적이면 OpenAI가 유리합니다. **넷째, 데이터 규제/국가별 상황** - 유럽같이 개인정보 규제가 센 곳에서는 Google, MS 모두 현지 준수모드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체 모델 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벤더 지원 및 계약조건** - 빅벤더와의 전략적 제휴 (예: 거액 투자나 공동개발 약속) 여부도 영향이 큼니다. 예컨대 어느 빅4는 Google과, 경쟁사는 MS와 더 깊이 협력하는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기업들은 OpenAI와 Google을 병행 활용하며 각축전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 기간 **멀티 모델 전략**이 유지될 것이고, **한쪽으로 올인하는 리스크**를 피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의 강점 기술**을 **모두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 쪽 플랫폼이 월등한 혁신을 보여주거나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서서히 **우승마를 정해 집중 투자**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모두 시험하고 최적 조합을 찾자”**는 것이 대세입니다.

## 발표 이후 Gemini 생태계에 대한 평가 (사용자 및 전문가 의견)

Google I/O 2025에서 대대적인 AI 발표가 있는 후, 일반 사용자부터 개발자, 업계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우려 섞인 평가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일반 고급 사용자들의 반응:** I/O 라이브 데모를 접한 많은 사용자들은 “**이제야 구글이 제대로 된 챗GPT 대항마를 내놨다**”는 기대를 표했습니다. 특히 Reddit, 트위터 등의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검색에 AI가 본격 통합된 모습에 호응이 컸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드디어 **Ask Anything**(뭐든 물어봐) 시대가 왔다”<sup>95</sup>며, 복잡한 질문도 한 번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흥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별도로 ChatGPT 켜놓을 일이 줄겠다**. 구글이 다 해주니까”처럼 **툴 피로도**가 줄 것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는 “**SGE 써봤는데 기대ほど는...**”이라며, 이전 시범 서비스(SGE)가 부정확했던 경험 때문에 신중론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리뷰 영상을 통해 Gemini의 **한글 답변 품질**이 공유되었는데, 대체로 “**한글로도 쓸만하다, 번역체 느낌이 덜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만 “**초창기 Bard 때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ChatGPT에 비해 응답 센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글쓰기나 유머 면에서 ChatGPT가 더 재미있는 답을 하고, Gemini는 **정보 나열형**으로 무미건조하다는 비교가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Google이 **AI 경쟁에 다시 뛰어든 것 자체에 긍정적**이며, **무료로 상당수 기능을 쓸 수 있는 점**은 좋은 평가 요인으로 꼽습니다.

- **개발자 커뮤니티의 평가:** 개발자들은 Gemin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에 상당히 놀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Gemini 2.5 Pro로 대부분의 코딩 작업이 잘 된다”는 후기부터<sup>39</sup>, “**GPT-4보다 빠르는데 결과도 비슷하게 좋다**”는 벤치마크 공유가 잇따랐습니다. 한 개발자는 “어떻게 무료로 이런 GPT-4급을 풀어놓을 수 있지” 감탄하며, Google의 인프라 스케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sup>96</sup>. 그러나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O 직후 Gemini 2.5 Pro 모델에 **대대적 업데이트(‘05-06’ 버전)**가 이뤄졌을 때, 몇몇 개발자는 “**업데이트 이후 체인-오브-생각(CoT) 표시가 숨겨지고, 응답 품질이 퇴보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sup>97</sup>. 실제 The Register 같은 IT언론도 이를 다뤄, Google이 충분한 공지 없이 모델을 바꾸어 **개발자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sup>65</sup>. 또한 Gemini 코딩 응답의 경우 지나치게 **불필요한 주석이나 설명을 장황히** 다는 버릇이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피드백도 있습니다<sup>98</sup>. 이는 Google이 안전성을 중시해 verbose하게 답하게 한 설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발자들은 ChatGPT, Claude, Gemini 등을 직접 비교 테스트하면서 각 장단을 분석하는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Medium 블로그에서는 “**GPT-4.1은 깔끔한 코드 생성, Gemini 2.5는 전체 코드베이스 분석 탁월, Claude는 긴맥락 요약 우수**” 등으로 진단하며, **특정 작업에 Gemini가 최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sup>99</sup>. 전반적으로 개발자들은 **경쟁 덕에 모델들이 서로 자극받아 발전**하는 걸 반기며, Google Gemini의 합류로 **오픈소스 LLM 연구도 다시 활기를** 띠 거란 기대를 표시합니다.

- **소셜미디어와 여론:** 트위터(현재 X) 상에서는 I/O 발표 직후 “**Google is back**”이라는 멘션이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 ChatGPT 쇼크 이후 부진하던 구글이 마침내 **승부수를 던졌다는 인식**입니다. 동시에 “**\$250 a month??**”처럼 AI Ultra 가격에 놀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선 터무니없이 비싸 보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밈(meme)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Ultra 가입자에게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동시에 쓴 ‘VIP 개’** 팔과 함께 “나 Ultra임”이라고 농담하는 식입니다. 즉, 아직까지 \$250 플랜은 대중과 거리가 있고, **과시적인 얼리어답터들의 전유물**로 여겨집니다. 한편 기업계정들의 반응을 보면, MS 직원이나 OpenAI 팬들은 “구글이 또 **과대 선전**하고 있다”라며 신중론을 폅니다. 특히 검색AI 관련해서 “**진짜 구글 검색 품질이 좋아질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AI 검색이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만큼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링크드인 등에서는 전문가들이 I/O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실제로 써보니 이랬다**”는 포스팅을 공유하는데, 현재까지는 **검색·오피스 생산성 향상**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글이 다수입니다. 예컨대 한 링크드인 사용자는 Gemini Live를 활용해 모의 면접을 본 경험을 소개하며 “**긴장감을 줄이는 데 도움되었다**”고 했고, 다른 전문가는 “**Gemini Deep Research로 5시간 걸릴 보고서를 30분만에 요약했다**”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들었습니다. 물론 부정적 후기(예: “거짓 정보를 그대로 리포트로 내놔서 위험할 뻔했다”)도 있어, 구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베타테스트 후기**들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 **업계 전문가 의견:** AI 연구자들과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Google의 접근에 대체로 고무되면서도, **장기적 관전 포인트**를 짚습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Google의 강점으로 **상업분야 사용자 베이스**를 들며, 실제 조사

에서 미국 이용자들이 제품 리서치·가격비교를 Gemini로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sup>52</sup> . 이는 Google이 전통적으로 강한 커머스 검색 영역을 AI로 지켜낼 가능성을 시사하며, 광고 비즈니스에도 긍정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sup>100</sup> . 한편 AI 안전성 측면에서, 몇몇 전문가는 Google이 강조한 **Responsible AI**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라고 평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은 규제 대응에 유리하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필터링하면 사용자 경험이 떨어져 결국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멀티모달 거대 모델**의 효용에 대해선 “아직 킬러 앱이 뚜렷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생성이 신기한지 하나, **일반 사무업무에서 핵심은 여전히 텍스트 처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Gemini가 내세운 멀티모달 강점이 실제 **업무생산성 기여**로 연결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Vision AI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면, GPT-4와 큰 차별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Agentic AI)**의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2025년 이 “**에이전트 AI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sup>101</sup> , Google의 Mariner 기반 Agent Mode가 선두주자가 될지, OpenAI의 GPTs 에이전트가 앞설지 흥미롭다는 평입니다. 실제로 I/O에서 Zillow 사례처럼 **웹작업 자동화**를 구현한 것은 획기적이지만, 일반인이 이를 신뢰하고 맡길 수준인지는 의문이니, 향후 사용자 피드백이 중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약컨대, 전문가들은 **Google이 AI 경쟁 판도를 흔들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며, 다만 **이용자 신뢰와 혁신적 사용성 측면에서 갈 길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반적으로 Gemini 생태계 출범은 긍정 7, 우려 3 정도의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편의성 향상을 반기면서도,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줍니다 - 곧장 뛰어들되, **리스크 관리 장치**를 갖추라는 것이죠. 발표 후 수개월 간 누적된 후기들을 보면, “**생산성은 분명 올라간다, 하지만 실수도 따른다**”는 현실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의 통찰과 AI의 속도를** 접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론도 깨닫는 분위기입니다.

## Gemini 모델의 기술 구조 및 성능 개선 (MoE, 컨텍스트 길이, 멀티모달 등)

앞서 부분부분 언급되었지만, Google Gemini의 핵심 **기술적 특징과 향상된 성능**을 한데 요약하겠습니다:

- **Mixture-of-Experts (MoE) 아키텍처**: Gemini는 2024년 초 버전 1.5부터 **기존 Transformer 대비 혁신적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sup>102</sup> <sup>44</sup> . MoE는 거대한 하나의 모델을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로 나누고, **입력 종류에 따라 관련 전문가 경로만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sup>44</sup> . 예컨대 수학 문제가 들어오면 수학 전문가 노드들이, 이미 지 관련 질문이면 시각 전문가 노드들이 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이 **스파스(sparse)한 활성화** 덕분에 동일 계산자원으로 더 큰 모델 효과를 내며, **학습과 추론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sup>103</sup> <sup>104</sup> . Google은 MoE 연구의 선구자로서 (스위치 트랜스포머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해왔고, Gemini에 이를 적용해 **모델 용량을 키우면서도 속도/비용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up>105</sup> . MoE 구조 덕에 Gemini는 **병렬처리와 전문가 집중학습**이 가능해져, 특정 영역(코드, 시각, 추론 등)에서 GPT-4 같은 **통짜 모델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MoE 모델은 훈련이 복잡하고, 잘못하면 전문가 간 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도 높은 기술입니다. Google DeepMind는 이 과제를 해결해 안정적 MoE 상용모델을 내놓았고, 그 결과가 Gemini의 **빠른 세대 점프** (1.0 → 1.5 → 2.5)로 나타났습니다.
- **초거대 컨텍스트 윈도우**: MoE 및 기타 최적화 덕분에 Gemini는 **압도적인 컨텍스트 길이**를 자랑합니다. 상용화된 LLM 중 최초로 **100만 토큰(약 8천만 자)에 달하는 맥락**을 유지한 모델이 Gemini 1.5 Pro였습니다 <sup>43</sup> <sup>106</sup> . 일반 제공은 128k 토큰으로 시작했지만, 연구 단계에서 **10배인 1백만 토큰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음을 발표했습니다 <sup>107</sup> <sup>42</sup> . 이는 기존 GPT-4 최대 32k 토큰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장문 이해 및 대용량 데이터 한 번에 처리**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100만 토큰이면 **수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한꺼번에 넣고 질문해도 AI가 전체를 맥락으로 고려해 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컨텍스트는 **메모리 요구량과 응답 지연**이 크므로, Google은 최적화 기술(메모리 관리, 부분적 컨텍스트 사용 등)을 병행 연구 중입니다 <sup>108</sup> <sup>109</sup> . 어쨌든 이 부분에서 Google이 기술 리더십을 잡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길이가 생명인 업무** (법률검토, 회계감사 등)에 Gemini가 적합한 근거가 됩니다. 한편 OpenAI도 대응으로 GPT-4 128k 버전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현재까진 Google이 한발 앞서 있습니다.
- **멀티모달 통합 학습**: Gemini는 태생부터 **텍스트·이미지·오디오 등 멀티모달 정보**를 한 모델에 학습시킨 **통합 모델**입니다 <sup>110</sup> <sup>111</sup> . GPT-4도 이미지 이해를 하긴 하지만, 별도 비전엔코더를 붙인 형태로 후추가되었습니다.

반면 Gemini는 DeepMind의 Perceiver 등 연구를 응용해, 다양한 입력 형태를 공통 표현 공간에서 다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 modality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modality에도 응용하는 **교차영역 학습**을 가능케 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로 학습한 상식을 이미지 질문에 활용하거나, 이미지로 배운 공간감각을 텍스트 답변에 녹이는 식입니다. 또한 멀티모달 모델은 **특정 모달에 치우친 편향을 줄이고, 보다 인간과 비슷한 직관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Gemini 2.5에서는 이러한 멀티모달 능력이 더욱 발전하여, I/O 데모에서 **카메라로 수식이 적힌 종이를 비추면 즉석에서 풀고 설명하거나, 동영상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등 시연이 있었습니다<sup>12</sup>. 이는 **단일 modality 한계를 넘는 종합적 AI**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다만 멀티모달의 상업적 효용은 이제 검증 단계입니다. Google은 Lens, Translate, YouTube 등과 결합해 **일상적으로 유용한 멀티모달 기능**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 제품 사용법을 영상으로 보여줘”라면, 설명과 함께 튜토리얼 영상을 생성하거나 찾아주는 식입니다. 향후 음성 비서(Assistant)에도 Gemini가 적용되어 **음성+화면+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차세대 AI 비서를 구현할 전망이다. 이는 ChatGPT의 틀에서 한 단계 나아간 사용자 경험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병렬 추론과 Tool 사용**: Gemini 2.5에 새로 추가된 **Deep Think 모드**는 **병렬적 사고(parallel thinking)** 기법을 활용합니다<sup>112</sup>. 하나의 질문에 대해 AI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설을 동시에 전개해보고, 이를 종합해 최종 답을 내는 방식입니다. 사람도 복잡한 문제 풀 때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가정해보는데, 그런 과정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로써 추론 정확도가 향상되고, **답변 과정에서 reasoning trace**를 더 잘 남겨, 필요시 사용자에게 **생각의 흐름(연산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mini 에이전트는 **툴 사용 능력** 강화를 위해 **Agent2Agent, MCP** 등의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sup>45</sup>. 예를 들어 Gemini가 **외부 계산기 API나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요청하여 정교한 답을 얻습니다. OpenAI도 유사한 플러그인/툴 사용을 했지만, Google은 이를 **표준 프로토콜**로 공개해 여러 서비스가 호환되게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기술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AI가 **모든 디지털 툴을 조종하는 허브**가 되게 하려는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등장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들 하는데, Google Gemini는 **기술적 기반(병렬추론+툴사용)**을 이미 잘 닦아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문제를 쪼개 여러 작업을 병렬 수행**하는 AI로 가는 초석이며, Google이 “우리는 AI를 생각하고 추론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기술로 입증한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능 벤치마크**: 기술 구조의 개선은 곧바로 수치 성능으로도 나타납니다. Google은 I/O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Gemini 2.5 Pro는 GPT-4 대비 여러 벤치마크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보입니다. 예컨대 MMLU(다분야 지식시험), CodeBench(코드문제), BBH(추론퍼즐) 등에서 Gemini 2.5 Pro가 GPT-4와 비슷한 점수를 획득했고, 수학능력시험(AIME)에서는 GPT-4를 뛰어넘는 90%대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sup>113</sup>. 또한 **다국어 능력 평가**에서도 Gemini 2.5가 GPT-4.5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sup>114</sup>. 다만 **실제 사용자 체감 성능**은 벤치마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문학적 창의력이나 추론 일관성 면에서 GPT-4가 낫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 경쟁이 예상됩니다. Google은 향후 **Gemini 3.0**을 준비 중일 것이고, OpenAI는 **GPT-5**를 연구 중일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모델 간 지능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제 **모델 활용법과 통합 경험**이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AI 기술 자체보다 이를 서비스에 녹여내는 역량**에서 차별화를 꾀할 것입니다.

## AI 비전문가가 업무 자동화를 시도할 때 유의할 점 (시행착오 줄이는 팁)

최신 AI 도구들은 **코딩 없이도 업무 자동화**를 가능케 하지만, 처음 접하는 비개발자들은 시행착오를 겪기 쉽습니다. 아래 몇 가지 **팁과 유의사항**을 따르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작게 시작하고 점진 확대하라**: 처음부터 업무 전반을 AI에게 맡기기보다, **간단한 작업 한두 가지부터 자동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회의록 요약” 등 실패해도 큰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AI의 한계와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점차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선불리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AI에 맡겼다가 오류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난이도 순으로 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AI에게 원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해야 결과물이 유용합니다. 막연히 “이 보고서 만들어줘”보다는 **단계별 지시와 조건**을 명시하면 훨씬 나은 품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3문단 요약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주요 위험 요소를 bullet 형식으로 나열해줘”처럼 구체화하세요. 그래야 AI가 의도를 헤매지 않고 정확히 작업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예시 형식**을 보여주고 “이런 스타일로 해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처음엔 길어지더라도, **명확성이 모호함보다 낫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AI 출력을 항상 검토/검증:**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sup>115</sup>. AI가 그럴듯한 결과를 내놓아도, 사람이 반드시 한 번 살펴보고 틀린 부분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예컨대 계산 결과는 샘플로 다시 계산해보고, 생성된 문장은 사실관계를 대조해봅니다. 특히 숫자 데이터, 법률조항, 고유명사 등은 AI가 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5분 점검**으로 대형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에 너무 시간이 들면 자동화 이득이 줄어들지만, 숙련되면 핵심만 꼭 집어 효율적으로 검증하는 요령이 생길 것입니다.
4. **피드백을 주고 지속 개선:** AI에게 원하는 결과가 처음에 안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피드백을 주거나 재시도**해 보세요. “좀 더 간결하게 다시 써줘”, “여기 정보가 빠져서, 포함해서 다시” 같이 요구하면 AI는 그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과 달라”라고 알려주면 AI가 바로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화식으로 AI를 튜닝**하면서 점점 업무 스타일에 맞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ChatGPT나 Gemini 모두 **사용자 피드백으로 학습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올바른 사용법을 학습시킨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다만 너무 예민한 정보(회사 기밀 등)는 앞서 논의한 대로 피드백에 포함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5. **프라이버시와 윤리를 고려:** 편의에 치중하다 보면 **무심코 민감한 정보를 넣거나 윤리적 딜레마**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AI에게 맡겨 분석시키는 것은 위험하며, 경쟁사 기밀을 우연히 AI에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AI에게 지시할 때 **차별적이거나 편향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용 평가 자동화에 AI를 쓰면서 특정 성별/인종에 불리한 패턴이 생기진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AI는 도구이고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최종 결정이나 민감 처리에는 사람이 개입하는 **휴먼 루프(human-in-the-loop)** 절차를 유지하세요. 이는 시행착오를 줄일 뿐 아니라, 혹시 모를 법규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6. **사내 규정과 협업 고려:** 회사마다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전사적으로 ChatGPT 사용을 금지하거나, 어떤 곳은 자체 내부 AI를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조직 정책을 우선 숙지**하고, 규정 내에서 활용하세요. 그리고 팀원들과의 협업에서 AI를 쓸 땐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문서 작성에 AI를 썼다면 “초안은 AI가 도왔습니다”라고 밝히면 동료들도 신뢰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괜히 숨겼다가 이상한 문장 스타일로 티가 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AI 산출물은 시작점**이고, **마무리는 인간 팀**이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면 시행착오가 줄고 시너지가 납니다.
7.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 마지막으로, AI가 만능이 아님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AI가 하기 어려운 작업(창의적 발상, 사람간 교감, 맥락 해석 등)**은 오히려 사람이 하고, AI는 그 주변의 귀찮은 잔무를 맡기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세요. 그리고 AI 결과가 애매하면,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하고 어디서 멈출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알아서 다 해주겠지”**보다는 **“내가 더 가치있는 일에 시간을 쓰기 위해 이 부분만 AI에게 맡기자”**는 식의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면, AI 도구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AI 활용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면서 위 항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AI 협업**은 결국 사람의 **적응력과 책임감**에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sup>115</sup>. 충분한 유의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 AI는 “일 잘하는 부하직원”처럼 우리의 업무를 보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以上、Google I/O 2025에서 발표된 주요 AI 기능과 그 **실무 활용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Google Gemini 시대**의 도래로 AI는 한층 우리 업무에 깊이 파고들고 있으며, **비개발자들도 즉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자친화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윤리·보안에 대한 군**



험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I/O 2025를 기점으로 경쟁사인 OpenAI ChatGPT와의 **건설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기업과 개인 생산성 도구에 혁신이 거듭될 것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양 플랫폼을 면밀히 비교하며 자신에게 최적인 조합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AI 도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새로운 Gemini 생태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업무 효율과 창의성 모두 잡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Google I/O 2025 공식 블로그 및 보도자료 <sup>4</sup> <sup>116</sup>, ZDNet 코리아 보도 <sup>81</sup> <sup>77</sup>, TechCrunch 리뷰 <sup>40</sup> <sup>41</sup>, CIO Dive 기사 <sup>84</sup> <sup>86</sup> 등. (각주 번호는 해당 출처의 일부분을 가리킵니다)

<sup>1</sup> <sup>2</sup> <sup>3</sup> <sup>4</sup> <sup>5</sup> <sup>24</sup> <sup>25</sup> <sup>26</sup> <sup>28</sup> <sup>29</sup> <sup>30</sup> <sup>34</sup> <sup>37</sup> <sup>38</sup> <sup>45</sup> <sup>55</sup> <sup>56</sup> <sup>57</sup> <sup>59</sup> <sup>60</sup> <sup>64</sup> <sup>95</sup> <sup>111</sup> <sup>112</sup> Google I/O 2025: Sundar Pichai's opening keynote

<https://blog.google/technology/ai/io-2025-keynote/>

<sup>6</sup> <sup>7</sup> <sup>8</sup> <sup>9</sup> <sup>10</sup> <sup>11</sup> <sup>12</sup> <sup>13</sup> <sup>14</sup> <sup>15</sup> <sup>16</sup> <sup>17</sup> <sup>18</sup> <sup>19</sup> <sup>20</sup> <sup>21</sup> <sup>22</sup> <sup>36</sup> <sup>116</sup> AI Mode in Google Search: Updates from Google I/O 2025

<https://blog.google/products/search/google-search-ai-mode-update/>

<sup>23</sup> <sup>35</sup> <sup>78</sup> <sup>79</sup> <sup>80</sup> <sup>83</sup> 구글, AI 구독 서비스 도입...”최신 기능 사용할 수 있는 VIP패스“ < IT·과학 > 기사본문 - 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37051>

<sup>27</sup> <sup>31</sup> <sup>32</sup> <sup>33</sup> <sup>54</sup> <sup>58</sup> <sup>77</sup> <sup>81</sup> ‘구글 I/O 2025’ 어떤 내용 공개됐나 -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50521090413>

<sup>39</sup> Gemini 2.5 Pro is by far my favourite coding model right now - Reddit

[https://www.reddit.com/r/ArtificialIntelligence/comments/1jyizj3/gemini\\_25\\_pro\\_is\\_by\\_far\\_my\\_favourite\\_coding\\_model/](https://www.reddit.com/r/ArtificialIntelligence/comments/1jyizj3/gemini_25_pro_is_by_far_my_favourite_coding_model/)

<sup>40</sup> <sup>41</sup> <sup>46</sup> Gemini Live could use some more rehearsals |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24/08/19/gemini-live-could-use-some-more-rehearsals/>

<sup>42</sup> <sup>43</sup> <sup>44</sup> <sup>102</sup> <sup>103</sup> <sup>104</sup> <sup>105</sup> <sup>106</sup> <sup>107</sup> <sup>108</sup> <sup>109</sup> <sup>110</sup> Introducing Gemini 1.5, Google's next-generation AI model

<https://blog.google/technology/ai/google-gemini-next-generation-model-february-2024/>

<sup>47</sup> <sup>48</sup> <sup>62</sup> <sup>63</sup> <sup>66</sup> <sup>67</sup> <sup>68</sup> <sup>71</sup> <sup>72</sup> <sup>73</sup> <sup>74</sup> Google Gemini Warning: Don't Share Confidential Information

<https://www.searchenginejournal.com/google-gemini-privacy-warning/507818/>

<sup>49</sup> <sup>50</sup> <sup>53</sup> <sup>69</sup> <sup>70</sup> <sup>76</sup> Harmonic Security - Gemini vs ChatGPT: Comparing Data Privacy Policies

<https://www.harmonic.security/blog-posts/gemini-vs-chatgpt-comparing-data-privacy-policies>

<sup>51</sup> <sup>52</sup> <sup>100</sup> Google May Have an Under-Appreciated Advantage in the AI Arms Race

<https://www.investopedia.com/google-may-have-an-under-appreciated-advantage-in-the-ai-arms-race-11738488>

<sup>61</sup> Gemini 2.5 Pro vs GPT-4 - DocsBot AI

<https://docsbot.ai/models/compare/gemini-2-5-pro/gpt-4>

<sup>65</sup> It's happening. Google's Gemini 2.5 Pro "05-06" update is so bad it's ...

[https://www.reddit.com/r/Bard/comments/1ki69cx/its\\_happening\\_googles\\_gemini\\_25\\_pro\\_0506\\_update/](https://www.reddit.com/r/Bard/comments/1ki69cx/its_happening_googles_gemini_25_pro_0506_update/)

<sup>75</sup> Gemini model training - Google Workspace Admin Community

<https://support.google.com/a/thread/339130365/gemini-model-training?hl=en>

<sup>82</sup> gemini-2.5-pro-preview-05-06 : r/Bard - Reddit

<https://www.reddit.com/r/Bard/comments/1kg45pu/gemini25propreview0506/>

<sup>84</sup> <sup>85</sup> <sup>86</sup> <sup>87</sup> PwC rolls out generative AI tax solution, grows Google Cloud alliance | CIO Dive

<https://www.ciodive.com/news/pwc-google-cloud-alliance-generative-ai-tax-solution/712871/>

- 88 KPMG Invests \$100M in Google Cloud Alliance to Accelerate ...  
<https://kpmg.com/us/en/media/news/kpmg-google-cloud-partnership-expansion-2024.html>
- 89 KPMG Invests \$100M in Google Cloud Alliance to Accelerate ...  
<https://www.linkedin.com/pulse/kpmg-invests-100m-google-cloud-alliance-accelerate-enterprise-pnuie>
- 90 KPMG Announces Google Cloud Center of Excellence to Advance ...  
<https://kpmg.com/us/en/media/news/kpmg-google-cloud-responsible-ai-2024.html>
- 91 KPMG to invest \$100m in Google Cloud partnership  
<https://www.internationalaccountingbulletin.com/news/kpmg-100m-google-cloud/>
- 92 Deloitte Launches New GenAI Platform for Government With Google ...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about-deloitte/articles/press-releases/deloitte-launches-new-genai-platform-for-government-with-google-public-sector.html>
- 93 Forge the future with Deloitte and Google Cloud  
<https://www.deloitte.com/et/en/alliances/google.html>
- 94 Pioneering AI with Deloitte and Google Cloud's Global Experience ...  
<https://www.deloitte.com/global/en/alliances/google/blogs/pioneering-ai-with-deloitte-google-clouds-experience-centers.html>
- 96 How the heck is Gemini Pro 2.5 free? : r/Bard - Reddit  
[https://www.reddit.com/r/Bard/comments/1jyjige/how\\_the\\_heck\\_is\\_gemini\\_pro\\_25\\_free/](https://www.reddit.com/r/Bard/comments/1jyjige/how_the_heck_is_gemini_pro_25_free/)
- 97 New update ruined Gemini 2.5. CoT is now hidden. : r/Bard - Reddit  
[https://www.reddit.com/r/Bard/comments/1kr5yo4/new\\_update\\_ruined\\_gemini\\_25\\_cot\\_is\\_now\\_hidden/](https://www.reddit.com/r/Bard/comments/1kr5yo4/new_update_ruined_gemini_25_cot_is_now_hidden/)
- 98 Gemini 2.5 pro is amazing : r/ChatGPTCoding - Reddit  
[https://www.reddit.com/r/ChatGPTCoding/comments/1jm1sdz/gemini\\_25\\_pro\\_is\\_amazing/](https://www.reddit.com/r/ChatGPTCoding/comments/1jm1sdz/gemini_25_pro_is_amazing/)
- 99 GPT-4.1 vs Claude 3.7 vs Gemini 2.5 Pro vs Grok 3 - Medium  
<https://medium.com/@cognidownunder/gpt-4-1-vs-claude-3-7-vs-gemini-2-5-pro-vs-grok-3-the-four-horsemen-of-the-ai-revolution-4fbcef192b11>
- 101 [PDF] Thematics: Uncovering Alpha in AI's Rate of Change - Morgan Stanley  
<https://www.morganstanley.com/content/dam/msdotcom/what-we-do/wealth-management-images/uit/AI-Enablers-Adopters-research-report.pdf>
- 113 114 Gemini 2.5 Pro vs GPT-4.5 - Eden AI  
<https://www.edenai.co/post/gemini-2-5-pro-vs-gpt-4-5>
- 115 5 Essential Tips to Avoid Generative AI Pitfalls That Could Destroy ...  
<https://www.linkedin.com/pulse/5-essential-tips-avoid-generative-ai-pitfalls-could-destroy-l78re>